

특집 I / 1995년도 수의·축산 정책 세미나①

〈개회인사〉

2천년대 수의축산계 생존을 위한 정책과제

이 길 재

수의 축산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구정도 지나 완전한 95년도도 시작되었습니다. 곰곰 생각해보면 특별히 95년은 수의사들에게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5년이 돼지해기 때문에 축산의 해라고 할 수 있고 또 95년부터 축산물 개방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도 그 어느해 보다도 95년이 중요한 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에서 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서양에서는 가축을 “Livestock”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삶(live)의 초석(stock)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만큼 인간생활과 가축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인식은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명한 소의 품종, 영국의 앵거스, 헤어포드 등과 화란의 홀스타인과 같이 선진국이 축산물을 지배하게 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가축을 농경의 기본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도구였습니다. 물론 이와같은 사상은 유교정신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지만 동양의 가축 관련 사업이 서양에 비해 뒤쳐지게 된 일정한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선진국에 있어서 수의의 의미는 기존 축산분야의 발전을 토대로 해서 한걸음 더 나

아가 ‘애완동물’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인식은 소위 동물과 인간의 상호공존은 환경보호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의 경우도 21세기를 대비하여 이와같은 선진국의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겠으나 한국의 특수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국의 수의·축산계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동안의 한국축산정책의 중심고리는 가축개량, 수급안정이라는 두가지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와같은 정책은 어디까지나 수입제한을 전제로 해서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레도수정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축산물이 완전개방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일정하게 향상되었으며, 환경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는 지금, 고전적인 가축개량이나 수급안정은 발빠르게 변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뒤쳐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질’의 시대이며, 철저한 ‘위생’의 시대입니다.

국민들의 검역에 대한 관심은 불과 몇년 전과 비교해 보더라도 엄청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국민적 요구와 함께 WTO시대에서 축산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통로하는 점에서 수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대부분의 축산물이 수

* 대한수의사회장, 국회의원

입개방되고, 비관적인 전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같은 전망에는 한국축산의 당면한 실정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낙담만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WTO는 수의사들의 지대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WTO는 연구개발, 기술지도 보급, 위생 및 방제 방역 등 일반서비스에 대한 지원 뿐만아니라, 환경보전 관련지원은 감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에 대한 한국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나 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낙후된 수준을 면치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 수의의 의미는 선진국과는 달리 축산분야에 보다 많은 무게중심을 싣고, 수입 축산물의 검역과 국내 축산업의 보호발전을 위한 위생체제 강화로 매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영역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게 확충되어야 하겠습니다.

축산분야 전체적인 차원을 볼 때 물가연동제 폐지

나 부족불제도 도입 등 축산업을 보호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수단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말하자면 수의분야에 대한 중요성의 재인식이 2천년대를 맞이하는 수의축산계의 생존을 위한 정책과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와같은 인식하에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스스로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자세로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의 축산인 여러분!

축산업의 경쟁력제고와 발전을 위한 총화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오늘 이 자이가 축산업자, 관련업계, 수의학계, 행정기관 등이 하나가 되고, 21세기 수의축산계 생존을 위한 공동노력의 새 출발점이 되도록 합시다.

대한수의사회는 역사적 사명감에서 주도적 노력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감당하기 위한 대한수의사회의 힘은 아직 미약합니다. 여러분들의 특히 관련업계의 배전의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닭고기와 동등한 소고기의 콜레스테롤 저하효과

Beef Equal to Chicken in Reducing Cholesterol; *Southeast Milk Producer, Summer, 1994 from Baylor College of Medicine in Houston*

소고기 애호가들은 Houston에 있는 Balor 醫科大學팀의 새로운 研究結果로 인해 소고기 섭취로 인한 혈중 콜레스테롤 증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소고기와 닭고기 모두 총지방이 낮아 血中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소고기와 닭고기 모두 혈중 콜레스테롤과 LDL의 水準을 유의성 있게 낮춰주는 효과가 있음을 報告하였으며 특히 LDL의 수준을 9~10% 낮춰준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Lynne Scott는 먹는 고기의 形態에 따라 혈중 콜레스테롤의 水準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의 지방과 포화지방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다시말해 소고기와 닭고기는 상당한 양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지만 상호전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중요한 것은 섭취하려고 하는 음식이 어떻게 조리되어 지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초역; 서울大 大學院 獸醫內科學 專攻 朴熙銘).